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6, pp.171-205  
<https://doi.org/10.29212/mh.2018..106.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파월한국군의 베트남어 교육과 활용

이신재\*

1. 연구의 목적
2.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교육
3. 베트남어 교육과정 운영
4. 베트남어 교육인원의 수준과 활용
5. 결 론

### 1. 연구의 목적

군대의 해외파병은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한다. 파병에 대한 정치적 명분과 국내적 동의 절차는 차치하고서라도 자국 영토와 다른 낯선 환경에서의 작전수행을 위한 ‘현지화 교육(localization training)’은 중요한 준비사항 중 하나이다.<sup>1)</sup>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 1) 현재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해외에 파병되는 군대의 교육을 위해 국제평화지원단과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파병을 위한 현지화 교육에서 특히 현지 언어에 대한 습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언어는 외국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군사활동의 양상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사작전(民事作戰)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전장에서 직면하는 언어소통의 문제는 이미 이전의 많은 전쟁에서 확인되었고, 한반도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러 사례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945년 8월 광복이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한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군사영어학교(Military Language School)라는 교육기관을 만든 바 있다. 군사영어학교는 군정 통치과정에서 직면한 미군의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역관 양성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sup>1)</sup> 1950년 6월 발발한 6·25전쟁 때에도 미군은 부족한 병력보충 및 한국군과의 효율적인 작전을 위해 통역장교의 파견과 카투스(KATUSA)라는 제도를 만들어 운용했고, 이것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sup>2)</sup> 6·25전쟁기간 중에 실시된 한국군의 도미(渡美) 유학도 한국군에게 미군의 전술과 제도를 익힘과 동시에 영어교육의 기회로 활용되었다.<sup>3)</sup>

이러한 군대의 어학교육에 대한 사항은 현재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미군은 국방언어학교(DLI)라는 기관을 통해 전 세계의 언어 및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sup>4)</sup> 한국도 육군정보학교에서 영어를

1) 1945년 11월 20일 미 군정청의 군무국 차장이었던 아르고(Reamer W. Argo) 대령은 미국식으로 편성될 한국군 조직의 간부양성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대두될 언어소통문제에 대비해 군사영어를 가르치는 군사영어학교(교장: 미군 중령)를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1945년 12월 5일 서울 서대문구 감리교신학교에서 개교해 1946년 4월 30일부로 폐교(이후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 설립)될 때까지 약 200명을 교육했다. 백기인, 『진군사』,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2, 322-325쪽.

2) 카투사는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의 약자로 주한미군부대에 배속된 한국군 병력을 의미한다. 미군은 효과적인 작전과 포로 심문을 위해 한국군 외에도 일본인 통역까지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1950년 6·25전쟁 기간부터 1972년까지 도미 유학한 인원은 총 31,900명에 달했다.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8, 156쪽.

4) 미 국방언어학교(Defense Language Institute)는 크게 영어센터(DLIELC)와 외국어센터(DLIFLC)로 구성되어 있으며, FAO(Foreign Area Officer) 프로그램 등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어 등 다양한 외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군에서 다양한 외국어에 관심을 갖고 ‘어학자원’을 양성하는 것은 평시에는 군사외교 등에 목적이 있겠지만, 전시에는 외국군과의 연합작전과 해외파병에서 직면하는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군의 건군이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해외파병이었던 베트남파병에서도 베트남어를 습득하는 것은 한국군이 준비해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다. 베트남전쟁이 전투 일변도가 아니라 군사작전과 민사작전의 비중이 양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민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 습득이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군의 베트남파병 당시 국내에서 베트남어는 매우 ‘희귀한 언어’였다. 1956년 5월 23일 한국과 베트남공화국(Republic of Vietnam, 이하 남베트남)이 국교를 맺고, 1957년 남베트남 응오딘지엠(Ngo Dinh Diem)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의 남베트남 방문으로 양국이 다양한 차원의 교류를 시작했지만, 누구나 쉽게 베트남어를 배우거나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sup>5)</sup> 국내에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기관이나 인력도 부족한 상태였다. 1967년 3월이 되어서야 국내대학에 베트남어과가 처음 개설되어 입학생을 모집하는 정도였다.<sup>6)</sup> 한국군 파병 당시 베트남어는 그야말로 매우 ‘특별한 언어’ 그 자체였다. 따라서 베트남에 파병되는 한국군(이하 파월한국군, 波越韓國軍)에 대한 베트남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

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DLI의 외국어과정 인터넷 홈페이지([www.dliflc.edu](http://www.dliflc.edu): 검색일 2018.1.2)를 참조할 것.

- 5) 지엠 대통령은 1957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방한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1958년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남베트남을 방문했다.
- 6) 국내대학의 베트남어과 개설은 한국외대가 처음이었다. 한국외대는 당시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베트남어 수요에 부응하고자 1966년 12월 설립인가를 받아 1967년 3월 첫 입학생 20명을 선발했으며, 1971년 13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http://www.vietnamhufs.co.kr/sub/sub01\\_01.php](http://www.vietnamhufs.co.kr/sub/sub01_01.php): 검색일 2018.1.2).

당시 한국군은 국내와 남베트남 현지에서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 베트남어 교육기관을 운용했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해외파병에서도 운용하지 않는 매우 독특한 사례로, 향후 해외파병에서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국군의 베트남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기존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 한국군 자료에 당시 교육받은 인원 숫자 정도가 확인될 뿐 구체적인 사항은 거의 알려져 있지 못한 상태이다.<sup>7)</sup>

이점에서 이 연구는 베트남전쟁 당시 파월한국군에 대한 베트남어 교육실태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베트남전쟁 당시 작성된 한국군 자료, 한국군 파병과 관련된 협정문, 참전자 증언 및 수기, 당시 신문 보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당시의 실태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파월한국군에 대한 베트남어 교육의 배경, 교육실태, 그리고 교육수료생의 활용과 성과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 2.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교육

### 가. 국내에서의 파병 준비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은 크게 3단계로 확대되면서 전개되었다. 1단계는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단의 파병, 2단계는 비둘기부대 파병, 3단계는 전투부대 파병과 증파(增派)였다. 파병이 전개될수록 파병부대의 규모는 증가했고, 파병부대의 성격도 비전투부대에서 전투부대로 변화하였다. 동시에 파병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준비과정도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7) 파월한국군의 베트남어 교육 통계자료는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 주월 한국군사령부, 1973에 수록되어 있다.

국내에서의 실시된 파병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1차 파병이었던 이동외과병원은 1964년 7월 15일 서울에 있던 제7후송병원에서 130명 규모로 창설되었다. 이 무렵 10명으로 편성된 태권도교관단도 별도로 편성되어 육군사관학교에서 파병훈련을 실시했다.<sup>8)</sup> 당시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동의요청’에는 이들의 파병교육에 대해 1964년 7월 20일 시작해 8월 8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sup>9)</sup> 이는 주말을 포함하더라도 채 20일이 되지 않는 기간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단의 파병 전 준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차 파병이었던 한국군사원조단, 즉 비둘기부대는 경기도 양평과 가평에서 준비과정을 거쳤다. 비둘기부대는 수송과 공병 중심의 비전투부대였다. 비둘기부대는 1965년 1월 27일 경기도 양평군 광탄에서 창설된 이후 1965년 2월 6일 경기도 가평의 제6사단 사령부 연병장에서 결단식과 2월 9일 서울운동장에서 국민환송대회를 거쳐 2월 12일 선발대가 부산항을 출발했다.<sup>10)</sup> 따라서 파병 전 교육시간은 부대편성 이후 결단식까지 약 1~2주일 정도였다. 당시 비둘기부대의 교육내용과 시간은 공병·수송부대와 경비대대 간에 차이가 있었다. 공병대대와 수송중대는 일반교육 27시간, 부대시험 16시간, 기타교육 29시간 등 72시간이었다. 이에 반해 경비대대는 이보다 16시간 많은 88시간을 교육했다. 교육완료 후에는 2일간의 훈련평가(ATT: Army Training Test)가 실시되었다.<sup>11)</sup>

3차 파병이었던 전투부대, 즉 수도사단, 해병 제2여단, 그리고 이후 제9사단의 파병 때에는 이전과 비교하여 교육기간이 늘어났다. 1965년 10월 해병 제2여단과 함께 첫 전투부대로 파병된 수도사단은 1965년

8) 육군본부, 『주월육군 역사사진집』, 서울: 육군본부, 1968; 소병민 증언(2017. 7. 19).

9) 국방부,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요청」(1964. 7. 23).

10) 육군본부, 『팜플렛 70-19-2 파월전사 제2집』, 서울: 육군본부, 1967, 64쪽.

11) 육군본부, 『팜플렛 70-19-2 파월전사 제2집』, 64쪽.

9월 4일부터 4주간 강원도 홍천에서 교육훈련과 정비를 실시하고, 10월 6일 홍천을 출발했다.<sup>12)</sup> 4주간의 교육은 당시 국방부에서 전투부대 파병준비 업무를 담당했던 합동계획단이 파병부대에 대해 30일간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계획했던 것에 따른 것이었다.<sup>13)</sup> 1966년에 파병된 제9사단의 경우에는 수도사단보다 교육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제9사단은 1966년 6월 20일부터 8~10주간 파병교육을 실시하였다.<sup>14)</sup>

이처럼 파병이 진행될수록 준비기간이 늘어난 것은 규모면에서 파병부대의 증가와 비전투부대에서 전투부대로의 부대성격의 변화에 기인한 결과였다. 이후 한국군은 파병이 장기화되면서 체계적인 파병 전 준비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강원도 화천군 오음리에 있던 당시 제7보충대에 ‘월남 파병훈련장’을 만들어 약 3개월 간의 파병준비 과정을 운영했다. 또 해병대도 포항에 ‘월남교장’이라 불린 별도의 훈련장을 갖추고 1차 파병 후 귀국자들을 교관으로 활용해 베트남 현지지형과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 나. 베트남어 교육 필요성 제기

국내에서 진행된 파병 준비교육은 크게 일반학, 전술학, 화기학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교육내용들은 교육시간의 증감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각 파병단계마다 유사했다. 그러나 베트남에 대한 소개와 더 나아가 베트남어에 대한 교육시간은 큰 변화가 없었다.

비둘기부대의 경우 파병 준비교육에서 4시간의 ‘월남소개’ 과목이

12) 수도기계회보병사단, 『맹호사』, 1980, 293쪽; 이재태, 『옛 전적지를 찾아가다』, 서울: 전통속보문화사, 2015, 42쪽.

13) 국방부 합동계획단, 『국방부 합동계획단의 증파부대(전투부대) 편성지침(1965.6.28.)』, 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전사 제11권』, 서울: 국방부, 1985, 635쪽.

14) 제9사단 작전참모처 편, 『백마부대사 제2집』, 고양: 제9사단, 1983, 415쪽. 당시 제9사단은 교육각서 제2호(1966.6.1) “파월을 대비한 교육계획”에 따라 파병 전 교육을 실시했다.

있었는데, 이는 전투부대인 수도사단과 제9사단의 파병교육 때에도 동일했다.<sup>15)</sup> 당시 교육과목에 베트남 소개는 있었지만, 베트남어에 대한 별도의 교육은 없었다. 다만, 베트남어 교육은 정훈감실에서 배포한 ‘월남어 회화집’을 장병 1인당 1부씩 지급되는 정도였다.<sup>16)</sup> 또 육군대학에서는 『월남지역편람』(상·하)을 제작해 배포하였다.<sup>17)</sup>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자국영토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의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파병 전 베트남어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던 것은 물론 충분하지 않았던 파병준비시간에 기인한 측면이 컸다. 제한된 파병 준비시간 속에서 언어보다는 베토콩의 전술과 이에 대한 대응훈련 등 필수적인 전술을 연마하는 것이 언어습득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것이다.<sup>18)</sup> 또 베트남어를 가르칠 만한 교관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미 사이공(Saigon) 현지에서 한국군이 남베트남군 및 미군과 체결한 협정으로 인해 상당부분 보완의 여지가 있었던 측면도 있었다. 이를테면, 1차 파병 당시 이동외과병원의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요원을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로 합의

15) 제9사단 작전참모처 편, 『백마부대사 제2집』, 433쪽.

16) 육군본부, 『육군사 제9집』, 서울: 육군본부, 1967, 227쪽. ‘월남어 회화집’은 1966년의 경우 2만 부가 제작되었다. 육군본부, 『육군사 제10집』, 서울: 육군본부, 1968, 176쪽. 당시 육군본부 정훈감실은 파병 장병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파병의 의의, 베트남소개, 국제예절 등을 내용으로 한 특별정훈교재를 발간 배부하여 출국 전에 교육을 실시했으며, 군인의 길 수첩 및 ‘월남어 회화집’을 발간해 1인당 1부씩 배부하였다.

17) 육군대학 역, 『월남지역편람(상·하)』, 진해: 육군대학, 1966. 이 책은 한국군이 자체로 제작한 것은 아니었다. 이 책은 1964년 미 육군성이 아메리칸(American) 대학교와 계약하여 제작한 『Area Handbook for Vietnam』을 수집해 번역·발간한 것이었다. 주요내용은 남베트남의 사회·정치·경제·군사적 배경 등이며, 용어해설, 남베트남군의 계급과 발음 등이 포함되어 있다.

18) 실제로 1969년 파병되면서 약 3개월간 강원도 화천의 베트남 파병교육장에서 교육 받은 하사관 참전자의 경우에도 개인별로 베트남어 회화집이 1권씩 제공되고, 간단한 소개가 있었지만, 이것은 일종의 소양교육 차원이었지 전술교육보다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김00 증언(2017.1.3).

되어 있었다.<sup>19)</sup> 전투부대 파병 때에도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통역관을 남베트남군이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다.<sup>20)</sup>

그러나 한국군의 파병규모가 증가하고 현지에서의 임무수행도 환자 진료, 태권도 지도, 비행장 경비 등의 단순임무에서 점차 넓은 전술책 임지역(TAOR)을 부여받고, 작전의 형태도 다양화되면서 현지 언어의 습득과 활용은 다른 전술적 능력만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초기 파병되었던 참전자들이 직면했던 베트남 현지에서의 언어장벽 문제도 한국군이 언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한국군의 언어 제한은 한·남베트남 또는 한·미·남베트남 간의 효과적인 연합작전 수행은 물론 한국군의 주된 작전 중 하나였던 민사작전에서도 효율성을 제한하고 있었다.<sup>21)</sup> 또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도 문제가 되었다.<sup>22)</sup> 파월한국군은 파병 초기 이 같은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스스로 베트남어를 배워 사용하거나,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는 한문을 써서 통하는 경우도 있었다.<sup>23)</sup>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통역관은 남베트남군이 제공한다는 1965년 9월 6일의 한·남베트남 간의 실무약정도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sup>24)</sup>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남베트남 측이 제공한 통역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남베트남 측이 제공하기로 한 통역(통역하사관)의 규모도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직위 중 겨우 절반가량

19) 「한·미·월 군사실무합의서」(1964.9.5). 태권도교관단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영어를 사용해 태권도를 지도했다. 소병민 증언(2017.7.19).

20) 「한·월 군사실무약정서」(1965.9.6).

21) 「명익표 증언(1966.10.10.)」,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3권』, 서울: 국방부, 2003, 25쪽.

22) 「성병문 증언(1978.2.16.)」,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3권』, 49쪽.

23) 「송정희 증언(1976.8.17.)」,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3권』, 410쪽.

24) 이 '한·월 군사실무약정서'는 한국군 대표 이세호 소장과 남베트남군 대표 트란 곡탐(Tran Ngoc Tam) 소장 간에 체결되었다. 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전사 제10권』, 서울: 국방부, 1985, 674쪽.



채워지는 정도였다.<sup>25)</sup>

한국군의 베트남어 사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북한군도 초창기 언어문제로 애로를 겪었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1966년 전투기 조종사를 파병하면서 베트남어 통역 부족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다음은 파병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김일성의 연설내용 중 언어문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동무들은 월남에 가면 그 나라 말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월남에 가서 자그마한 수첩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 나라 말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월남말을 아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통역원을 동무들과 함께 보내지 못합니다.<sup>26)</sup>

또 한국군을 상대로 전단(빠라)을 제작·살포하는 등의 심리전을 전개했던 북한군 부대가 현지 베트콩들과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 원활한 작전을 전개하지 못한 것은 한국군과 유사했던 문제라고 할 수 있다.<sup>27)</sup> 북한은 더 많은 심리전부대를 파견하고자 했으나, 북한군 내부에

25) 당시 남베트남 통역하사관 직위가 승인된 부대는 수도사단(69개 직위), 9사단(69개), 해병 제2여단(18개), 군수사(18개), 군사정보대(18개), 민사심리전 중대(6개) 등이며 총 198개 직위였다. 1966년 12월 기준 총 198개 직위 중 실제 보직은 113명으로 85명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6개월 뒤인 1967년 6월에는 108명으로 줄어 필요한 직위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주월사 「지휘관 회의록(1966. 12. 22)」(HB01975); 주월사, 「지휘관 회의록(1967년 2/4분기)」(HB01976). 여기서 HB는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사료 관리번호임.

26) 김일성, “월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된다(조선인민군 제203부대 군인들과 한 담화, 1966년 10월 19일),” 『김일성 전집 제3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383쪽. 당시 북한은 월남을 ‘월남’으로 표기했다.

27) 수도사단 G-2, 「북괴공작단 침투(1968)」(HB01811).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제9사단이 1968년 5월 작전 중 노획한 북한군 문서 “빈딘성에서의 활동보고”에 따르면 통역이 없어서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북한군은 북한말과 베트남어 사이에 통역이 없어서 중국어와 한자를 통하는 복잡한 통·번역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이후 본격적인 베트남어 통역이 합류하면서 이 문제는 점차 해결되었다고 되어 있다.

베트남어 소통이 가능한 인원의 제한으로 장애가 되고 있었음이 루마니아 외교문서에서도 확인된다.<sup>28)</sup>

따라서 한국군은 베트남어 가능 인원의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파병 준비과정과 베트남 현지에서의 베트남어 교육과정을 만들어 베트남어 자원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또 이를 시행하면서 1966년 파병된 제9사단의 경우에는 베트남어 교육 인원을 선발하여 남베트남에 미리 보내 위탁교육을 시키기도 하였다.<sup>29)</sup> 이때는 이미 사이공의 남베트남군 언어학교와 수도사단 및 해병 제2여단 등 각 부대에 ‘월남어 교육대’라 불린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 3. 베트남어 교육과정 운영

#### 가. 국내에서의 교육

파월한국군에 대한 베트남어 교육은 지역적으로는 국내와 베트남 현지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국내에서의 과정은 파병 준비과정에 해당되며, 베트남 현지교육은 파병 기간 중 과정이었다. 국내에서 진행된 파병 장병들에 대한 베트남어 교육은 크게 두 가지 였다. 하나는 전 파병장병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어의 문법과 기초회화, 군사관계 용어

28)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July 6, 1967”. 이 문건은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NKIDP)’의 일환으로 수집해 영어로 번역한 것임.(<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romanian-document-confirms-north-korea-sent-troops-to-vietnam#sthash.iJ2gUcLi.dpuf>, 검색일: 2017.3.1).

29) 제9사단은 장교 17명, 사병 5명 등 22명을 선발해 제1제대가 출발하기 1개월 여 전인 1966년 7월 미리 남베트남에 보내 12주에서 최대 16주간 베트남어 교육을 실시였다. 제9사단 작전참모처 편, 『백마부대사 제2집』, 441쪽, 455쪽.

등 소양(素養)교육 수준의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정분야 근무자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이었다.

파병부대원 전체에게 현지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장병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들에게 필수적인 회화 위주로 교육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를 테면 기초어법, 인사말, 자기소개, 물건 사는 법 등 일상적 회화와 군인으로 알아야 할 군사용어 등이 대표적이다. 대다수의 장병들은 기초적인 수준의 일상회화를 자습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군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한 ‘월남어회화집’에 수록된 용어를 학습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가능 했을 것이다.<sup>30)</sup>

그러나 파병장병들에 대한 일반적인 베트남어 교육과 달리 베트남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위의 장병들에 대해서는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했다. 따라서 파월한국군에서 민사작전, 정보장교, 신문(訊問)장교 등의 특정 직위에서 근무하는 장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전문과정 성격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운용되었다.

국내에서 실시된 일종의 베트남어 특별교육과정은 육군 군사정보대(MIG: Military Intelligence Group)에 설치 운용되었다. 이 교육을 받은 인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당시 군사정보대 베트남어과정은 1967년 이후에 개설되었고, 1개 교육기수는 약 50명 정도였으며, 교육기간은 3개월이었다.<sup>31)</sup>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인원들은 주로 정보수집

30) 전체 201쪽 분량의 이 책은 베트남 문자, 베트남어 어법, 기초회화, 응용회화, 군사용어 등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많은 부분은 회화(165쪽 분량)이며, 군사용어는 약 10쪽 분량으로 계급, 군직위 칭호, 군관계학교, 장비, 작전, 전투 등의 용어가 수록되어 있다. 1966년 1월 ‘국민계몽선전사’에서 발행한 이 책에는 ‘월남어 회화를 내면서’라는 제목의 1장짜리 서문이 실려있다. 그 내용은 ‘한·월 유대 속에서 월남전선으로 가는 장병들의 무운을 기원하며, 언어가 통하지 않는 불편이 이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추동우, 『월남어회화』, 서울: 국민계몽선전사, 1966.

31) 베트남 파병 전 이곳에서 베트남어 교육을 받은 이들 중 증언한 이들은 신인섭(28

및 포로신문, 그리고 민사업무에 근무할 장교들이었다. 이곳은 현재 서울 반포대교 북단의 한강중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sup>32)</sup>

이곳에서 베트남어를 가르치던 교관은 당시 주한 남베트남 대사관의 무관 보좌관(소령)이었고,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원어민이 보조교관을 담당했다. 베트남에 파병되었다 귀국한 한국군 장교들 중에 일부도 이곳에서 교관으로 활동했다.<sup>33)</sup>

## 나. 베트남 현지에서의 교육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군에 대한 베트남어 교육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첫째, 남베트남군 언어학교에 위탁교육, 둘째, 수도사단, 제9사단, 해병 제2여단, 건설지원단, 제100군수사령부 등 한국군 부대에 설치된 이른바 ‘월남어 교육대’, 셋째, 일반 장병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회화책과 소식지에 수록된 ‘월남어교실’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 1) 남베트남군 언어학교 위탁교육

#### 가) 교육기관과 비용

파월한국군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베트남어 교육은 남베트남군 언어학교 위탁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한국군이 남베트남 측에 제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sup>34)</sup>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베트남어 사용 필요

---

연대 1대대 작전장교), 김창덕(제28연대 정보주임), 김동수(신문장교) 등이 있다.

32) 현재 이곳은 국방부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다. 박민식, 김동수, 소병민 증언 종합

33) 박민식 증언(2017.8.8); 소병민 증언(2017.7.19). 사이공의 언어학교에서 베트남어 과정을 이수했던 박민식은 귀국 후 1968년 3월부터 9월까지 이곳에서 교관으로 근무했다.

34) 박민식 증언(2017.8.8.); 김풍, 『평화의 십자군 베트남 1969』, 고양: 우신출판문화, 2013, 107쪽. 이를 반영하듯 1967년 6월 9일 제4기 한국군 베트남어기초과정 수료식에는 남베트남군이 한국군에게 필요한 통역관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월 군사실무약정서’(1965.9.6)의 남베트남측 서명권자였던 트란콕탐 소장이 국제군사지원단(IMAO) 단장(중장)으로 임석했다. 매일경제, “한국장병 37명 수

성이 증가함에 따라 어학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남베트남 국방부에 한국군 위탁교육 문제를 제의했다. 남베트남군 언어학교는 남베트남 군인들에게 주로 영어와 프랑스어를 가르치던 곳으로 한국의 육군정보학교 어학과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다. 학교장은 소령이었으며, 사이공의 뎐선녓(Tan Son Nhut) 공항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한국군이 남베트남군 언어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과 관련해 소요되는 비용일체는 주월 미 군사원조사령부(USMAC-V)에서 지원하였다.<sup>35)</sup> 당시 미군의 경비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한·미간의 협정내용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는 있다.

주월한국군과 주월미군은 1965년 12월 15일 ‘주월한국군사령부 및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부간의 경리실무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 제6조는 특별활동비용(Special Activity Costs)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제6조의 내용은 “주월 미군사원조사령관은 심리전활동, 정보활동 및 주월한국군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된 기타 적합한 활동과 같은 특별활동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었다.<sup>36)</sup> 한국군이 베트남어를 배우는 것은 제6조에 명시된 사항에 적합하였기 때문에 미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 나) 교육생 선발대상

남베트남군 언어학교 위탁교육생은 파월한국군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선발방법은 두 가지였다. 장교는 각 부대별로 추천된 인원을 선발했고, 추천대상은 베트남어 필수직위에 근무하는 자가 우선이었다.<sup>37)</sup> 그러나 하사관과 병사는 부대 추천을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필기

료’, 『매일경제』(1967년 6월 12일).

35) 이 부분은 박민식 증언(2017.8.8.); “장창규 증언(2000.12.19),”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으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제1권』, 서울: 국방부, 2001, 575쪽,

36) 「주월한국군사령부 및 주월 미군사원조사령부간의 경리실무협정」(1965.12.15).

37) 박민식 증언(2017.8.8).

및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했다.

1969년도에 사이공 언어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김풍의 경우를 보면, 제9사단 30연대 예하 중대에서 근무할 당시 중대의 정보요원으로 베트남어를 배우는데 적임자로 추천되어 사단 사령부에 가서 영어 필기시험을 보고, 사이공의 주월사에 가서 면접시험을 본 뒤 최종 합격해 사이공 언어학교에 입학했다. 김풍이 선발될 당시 소속연대(30연대)에서 5명을 포함해 제9사단 전체에서 43명의 병사와 하사관이 필기시험을 보았지만, 합격자는 6명이었다고 한다.<sup>38)</sup> 약 7:1의 높은 경쟁이었다.

당시 남베트남군 언어학교는 영어로 강의했기 때문에 각 부대에서 교육인원을 선발할 때 영어시험을 보았다. 국내에서 대학재학 중 영어를 전공했던 김풍에 따르면 시험의 난이도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였다고 한다.<sup>39)</sup>

선발인원은 주월사 예하 각 부대별로 대체로 균등하게 할당되었다. 1966년 제2기로 교육받은 박민식에 따르면, 자신이 교육받았던 1~2기의 경우 장교 교육생 20명의 소속은 주월사(2), 비둘기부대(2), 해병 제2여단(2), 제100군수사(2), 수도사단(3), 제9사단(3) 등이었고, 군 목사(2), 방첩대(2), 이동외과병원(2) 등도 있었다고 한다.<sup>40)</sup>

병사로서 제11기로 언어학교를 수료한 김풍의 경우에는 장교 25명, 사병 25명 등 총 50명이었으며, 이는 수도사단, 제9사단, 해병 제2여단, 제100군수사, 비둘기부대 등 각 부대가 혼합되어 있었고, 간호장교도 2명이 있었다고 기억한다.<sup>41)</sup> 또 같은 병사로 1966년 언어학교를 수료한 박상호의 경우에는 장교 9명과 사병 8명이 함께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함께 교육받은 인원들은 각 부대에서 대체로 2명씩 뽑혀

38) 김풍, 『평화의 십자군 베트남 1969』, 103쪽.

39) 김풍, 『평화의 십자군 베트남 1969』, 103-104쪽.

40) 박민식 증언(2017.8.8).

41) 김풍, 『평화의 십자군 베트남 1969』, 103-104쪽.

왔다고 회고한다.<sup>42)</sup>

#### 다) 교육기간과 교육방식

남베트남군 언어학교의 교육과정은 초급반과 고급반 2개 과정이 운용되었다. 고급반은 초급반을 이수한 후 심화교육을 위한 과정이었다.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초급반과 고급반 전 과정(6개월)을 이수한 인원도 있었다. 박민식에 따르면, 1966년 하반기에는 초급반만 있었지만, 1967년 하반기부터는 고급반도 생겼다고 한다.<sup>43)</sup>

교육기간은 12주(3개월)였다. 주간 교육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었다. 이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일 8시간, 그리고 토요일은 4시간의 강의를 이루어졌다.<sup>44)</sup> 통상 1개 기수의 교육인원은 20~50명까지 차이가 있었다. 1966년도에 교육을 받은 박민식의 경우에는 20명이었고, 1969년도에 제11기로 교육을 받은 김풍의 경우에는 장교 25명, 사병 25명 등 총 50명으로 회고한다.<sup>45)</sup>

박민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교육기수 20명을 2개 반으로 편성했다고 한다. 그리고 교관은 남베트남 중위, 대위급이었고, 영어를 사용해 강의했고 회화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sup>46)</sup> 김풍에 따르면, 교사들은 군인(소위, 중위, 상사, 하사 등 7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영어로 강의했다. 학습과목은 일반회화와 군사용어였는데, 일반회화를 군사용어보다 더 많이 교육했다.<sup>47)</sup>

#### 라) 교육생 지원사항

교육기간 중 한국군 교육생들의 소속은 주월사였다.<sup>48)</sup> 그리고 이들이

42) 박상호 증언(2017.8.8).

43) 박민식 증언(2017.8.8).

44) 박민식 증언(2017.8.8).

45) 김풍, 『평화의 십자군 베트남 1969』, 105쪽.

46) 박민식 증언(2017.8.8).

47) 김풍, 『평화의 십자군 베트남 1969』, 107쪽.

교육받은 동안의 비용은 미군의 지원을 받았다. 미군의 지원으로 남베트남군 언어학교에서 교육받은 교육생의 처우는 좋았다. 장교와 사병간에 차이는 있었지만, 베트남어를 배우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구비하였다.

장교 교육생은 언어학교장이 지정한 안전한 가정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자연스럽게 베트남어를 습득하도록 했다. 이런 곳은 대부분 남베트남 유력인사의 가정이었는데 이로 인해 한국과 남베트남간의 친선도 도모하는 부가적 효과가 있었다.<sup>49)</sup> 또 이들 가정에서는 한국인 기호에 맞는 1일 3끼의 식사와 숙소에서 학교까지 1일 4회(등·하교, 숙소에서 점심식사를 위한 이동 포함)의 교통편을 제공했다.<sup>50)</sup> 장교 교육생의 경우에는 1일 16\$, 1개월 480\$의 출장비를 지급받았다. 이 금액에서 300\$은 숙식(하숙)하는 베트남 가정에 비용으로 지급되었다. 남은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금전적 지원으로 인해 베트남어 교육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특혜’로 인식되는 경향도 있었다고 한다.<sup>51)</sup>

사병들의 경우에는 12주 교육기간 중 사이공의 주월사 보충대에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했다.<sup>52)</sup> 그러나 같은 사병이었지만 시기적으로 1969년도에 입교한 김풍의 경우에는 주월사 보충대가 아니라 사이공 시내의 브라이언트 호텔(Bryant Hotel)에서 3개월간 머물렀다. 이곳에서는 아침은 한식, 중·석식은 양식이 제공되었는데, 이를 위해 호텔

48) 김풍, 『평화의 십자군 베트남 1969』, 107쪽.

49) 1966년 겨울에 파병된 장창규의 경우에는 남베트남의 외교부 차관 사택에서 거주하였다. “장창규 증언(2000. 12. 19)”,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제1권』, 575쪽.

50) 박민식 증언(2017.8.8).

51)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3개월 동안 전투현장에서 벗어나 외국어를 배우고, 이 과정에서 금전적 혜택까지 제공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력적인 기회였을 것이다. 480\$ 중 1인당 하숙비를 제하고 남은 180\$은 당시 한국군 중령의 1개월분 해외 근무수당에 해당하였고, 베트남기술자들 봉급(월 50\$)의 3배가 넘는 것이었다.

52) 박상호 증언(2017.8.8).



에는 미국인과 베트남인 요리사, 그리고 한국인 민간 요리사도 있었다. 이곳은 일반 부대와 달리 점호는 없었고, 숙소에서 차량으로 40분 거리에 위치했던 학교까지는 전용버스가 운영되었다.<sup>53)</sup>

## 2) 한국군 자체 베트남어 교육대

사이공의 남베트남군 언어학교 과정과는 별도로 한국군은 각 해당 부대에서 자체 베트남어 교육과정을 운용했다. 이는 사이공의 언어학교만으로는 필요한 베트남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주월사에서는 수도사단, 제9사단, 해병 제2여단 등 전투부대 3곳과 건설지원단, 제100군수사령부 등 비전투부대와 지원부대 2곳 등 총 5곳에 이른바 ‘월남어 교육대’를 설치 운영했다.

이곳에서는 베트남인 교관이 한국군 부대에서 선발된 장병들을 교육했다.<sup>54)</sup> 각 사단의 베트남어 교육대는 12주(3개월)주의 초급과정과 2주의 단기과정이 운영되었다.<sup>55)</sup> 12주 과정은 베트남어 초급과정이었지만, 사단 베트남어 교육대의 정규과정으로 각 사단에서 베트남어가 필요한 직위의 장병들에게 베트남어를 교육했다.

단기과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베트남어가 필요한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제9사단 헌병대 교통반장으로 파병된 김문구의 경우가 그러한데, 그는 베트남에 도착 후 2주간 베트남어를 공부한 후 소속부대에 전입하였다.<sup>56)</sup>

53) 김풍, 『평화의 십자군 베트남 1969』, 107-108쪽.

54) 각 부대 베트남어교육대에 근무했던 베트남인 어학강사들에 대한 비용이 한국, 베트남, 미군 중 누가 부담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주월 한·미군사실무약정서’(1965.9.6)에 명시된 “US MAC-V는 한국군 예하 각 부대에서 임무 수행상 필요로 하는 통역관 및 일반 고용인을 제공한다”는 조항에 따라 미군의 비용이 지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5)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종합연구』, 197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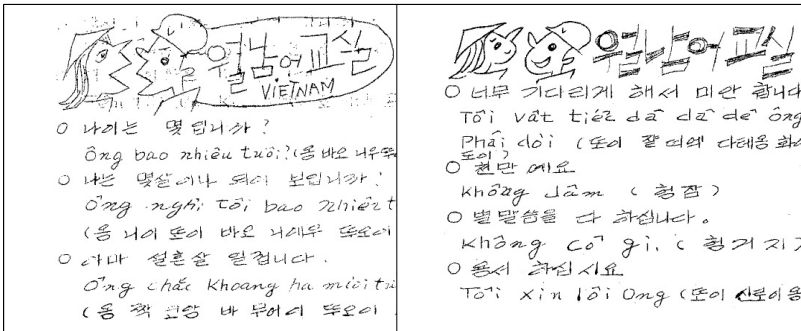
56) “김문구 증언(2000.12.18),”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으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제3권』, 682쪽,

3) 회화교재와 소식지를 이용한 교육

사이공의 언어학교나 각 한국군 부대에 설치되었던 ‘월남어 교육대’가 특수한 목적이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베트남어 회화집과 소식지를 통한 교육은 일반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것은 별도의 소집교육이 아니라, 각 개인별로 지급되었던 베트남어 회화집과 당시 각 부대 정훈참모부에서 발행했던 소식지에 베트남어 교육내용을 포함해서 이루어졌다.

수도사단의 경우 정훈참모부에서 주간(週刊) 단위로 ‘맹호’라는 소식지를 발행했다. 총 6면 분량의 이 소식지는 주로 한국군의 전투소식 및 전과, 지휘관 변동사항, 부대방문자 현황, 사단 소속 부대 탐방기, 주민들과의 친선행사 등이 글과 그림, 연재만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소식지의 한 지면에 ‘월남어교실’이라는 지면을 개설하고, 간단한 베트남어를 알려주는 것이었다.<sup>57)</sup>

〈그림-1〉 수도사단 소식지에 수록된 ‘월남어교실’<sup>58)</sup>



57) 이러한 성격의 소식지는 제9사단에서도 ‘백마’라는 제호(題號)로 발행되었으며, 수록 내용은 ‘맹호’와 유사했다.

58) 그림 좌측은 수도사단 정훈참모부, “주간지 맹호 제124호”(1968년 3월 1일자)이고, 우측은 1968년 3월 8일자 제125호이며, 각 6면(총 6면)에 게재된 베트남어 교실 내용이다. 수도사단, 「맹호주간지 119-200호(1968.1.19-1969.8.15)」(HB02459).

이러한 방식은 강제성이 있는 교육은 아니었다. 단순히 독자인 장병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이를 익히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 개인적 활용에 맡겼던 것이다. 그러나 1969년 주월사에서 베트남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책으로 전 장교 1일 1어구(語句), 사병 1주 2어구 습득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있었다.<sup>59)</sup>

#### 다. 베트남어 교육생 현황

부족한 베트남어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한국군의 베트남어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원은 어느 정도였을까?

당시 국내에서 파월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군사정보대에서 실시한 교육인원의 규모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파병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산술적으로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자가 연인원 324,864명이었기에 이들 모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이다. 군사정보대에서 교육받은 인원도 1개 기수가 약 50명 미만이었고 교육기간은 3개월이었기에 산술적으로 1년에 4개 기수×50명=200명이 된다. 1967년부터 1972년까지 6년간 약 1,200명이 국내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된 사이공의 언어학교 과정과 각 부대의 ‘월남어 교육대’ 수료생의 현황은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확인된다. 주월사에서 편찬한 자료에 따르면 그 규모는 총 4,519명(언어학교 1,344명, 자대 교육대 3,175명)에 이르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운영된 사이공 언어학교의 경우 고급과정 14기, 초급과정 25기, 건설지원단 과정 4기 등 총 43개 교육기수를 운용했다. 이 과정을 통해 베트남어 교육과정을

59) 주월사, 「지휘관 회의록(1969. 1. 20)」(HB01985).

수료한 인원은 총 1,344명이었다. 고급반 이수자는 371명, 초급반 이수자는 973명이었다.

신분별로는 장교 401명, 사병 943명이었다. 시기별로는 1966년 처음 시작할 당시 고급반 1개기, 초급반 3개기를 완료하여 1년간 총 126명의 교육생이 수료했지만, 1967년은 138명, 1969년은 304명, 1970년 332명 등으로 증가했다. <표-1>은 당시 남베트남군 언어학교의 연도별 교육 이수현황이다.

그러나 1971년도에는 초급반 과정이 폐지되고 고급반 과정만 운영되었다. 이후 사이공의 언어학교 과정도 폐지되었다. 이를 대신해 건설지원단에 고급반과정이 개설되어 4개기가 운영되었다.<sup>60)</sup>

한국군 예하부대별로 설치 운영되었던 ‘월남어 교육대’ 이수자 현황은 3,175명에 달했다. 이중 장교는 340명이고 사병은 2,835명이었다. 비록 초급과정을 운영하는 곳이었지만, 규모로는 사이공의 언어학교 이수자 1,344명보다 약 2.4배 많은 규모였다.

<표-1> 남베트남군 언어학교 교육 이수현황

구분	계		고급반		초급반		비 고
	장교	사병	장교	사병	장교	사병	
계	401	943	96	275	305	668	고급 14, 초급 25, 건지단 4 학급
1966	55	71	10	0	45	71	고급 1기, 초급 1,2,3기
1967	98	40	11	0	87	40	고급 2기, 초급 4~7기
1968	71	68	12	0	59	68	고급 3기, 초급 8~10기
1969	132	172	25	0	107	172	고급 4~6기, 초급 11~17기
1970	12	320	12	46	0	274	고급 7~9기, 초급 18~25기
1971	27	154	20	111	7	43	고급 11~14기, 건지단 1기
1972	6	118	6	118	0	0	건지단 2~4기

\*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종합연구』, 1076쪽.

시기별로는 처음 교육생이 배출되는 1966년 232명에서 1967년은 493명, 1968년 670명, 1969년 574명, 1970년 577명, 1971년 629명

60) 주월사, 「회의록(1972년 전반기)」(HB01953).

이었다. 부대별로는 수도사단이 1,103명, 제9사단이 1,107명으로 다른 부대보다 월등히 많았다. 해병 제2여단은 235명, 제100군수사령부는 487명, 건설지원단은 243명이었다. 이에 대한 세부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자대 베트남어 교육대 이수자현황(초급반)

장교/사병

연도별	수도사단	9사단	해병여단	100사	건지단	계
66	31/123	/78	-	-	-	31/201
67	17/138	59/191	-	2/86	-	78/415
68	23/216	29/204	/21	9/128	/40	61/609
69	21/148	16/161	1/76	18/81	/52	56/518
70	28/171	12/121	3/57	7/116	3/59	53/524
71	24/163	26/210	7/70	4/36	/89	61/568
계	144/959	142/965	11/224	40/447	3/240	340/2835

\*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종합연구』, 1076쪽.

## 4. 베트남어 교육인원의 수준과 활용

### 가. 한국군 교육생의 베트남어 수준

그렇다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국군의 베트남어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베트남어는 A, B, C 등 29개의 알파벳으로 되어있다. 영어 알파벳의 F, J, W, Z가 없는 대신에 Ā, Â, Đ, Ê 등이 추가되었다. 또 6가지 성조(聲調)가 있는데, 이로 인해 같은 음(音)일지라도 성조에 따라 단어들이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지역 간에 발음의 차이도 커서 외국인들에게 베트남어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sup>61)</sup>

61) 송정남, 『베트남 탐구』, 서울: 한국외대 지식출판원, 2015, 66-67쪽.

모든 어학이 그러하듯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교육을 받은 한국 군들은 당시 본인들의 베트남어 수준이 대체로 양호했다고 회고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이공의 언어학교를 졸업한 박민식은 교육 수료 후 기본적인 것은 다 이해했다고 회고한다. 베트남어가 대체로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부 임무수행 간 어려운 베트남어에 직면할 때도 있었지만, 이럴 때는 베트남 여성 타자수(Typist)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회고한다.<sup>62)</sup>

1966년 말 파병된 장창규의 경우 베트남어 교육방법은 일단 무조건 외우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베트남어 역시 중국어 계통이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단어들 많아서 암기를 하다 보니 저절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시험도 암기한 내용으로 자유대화(free talking)를 하는 방식이었다.<sup>63)</sup>

국내에서 군사정보대 베트남어과정을 이수한 김동수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군대용어를 주로 사용해 이해가 빨랐다고 한다. 성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한자에서 파생된 언어인 만큼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또 파병이전에 반드시 습득해야 한다는 당시 상황도 짧은 시간에 실력을 향상시키는 촉진요인이었다. 베트남 현지에서 신문 장교로 임무수행 할 때에는 신문 또는 노획문서 해독과정은 무난했고, 정말 어려운 것은 남베트남 통역장교에게 묻고 확인했다고 한다.<sup>64)</sup> 김창덕은 국내교육을 통해 ‘간단한 의사소통이나 노획 문서의 해독, 그리고 간단한 포로 신문은 할 수 있었다’고 한다.<sup>65)</sup>

베트남 현지 한국군 부대에 설치되었던 ‘월남어 교육대’를 수료한 서경석은 이 교육을 받은 뒤 현지 주민과의 잦은 접촉에서 어느 정도의

62) 박민식 증언(2017.8.8).

63) “장창규 증언(2000.12.19.)”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으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제1권』, 575쪽.

64) 김동수 증언(2015.11.16).

65) “김창덕 증언(1982.10.11.)”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으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제2권』, 301쪽.

의사소통은 가능했다고 증언한다. 그러면서 각 소대 단위까지 베트남어 통역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하면 의사소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회고한다.<sup>66)</sup>

그러나 당시 한국군의 내부기록에 따르면 베트남어 교육 수료생들의 수준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도 확인된다. 1969년의 경우 초급과정 수료자의 어학능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1973년 1월 주월사 지휘관 회의록에는 초급반 수료만으로는 실무에 응용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었다.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교육입교자 선발시 적격자 엄선과 ‘월남어 교육대’에 초급반과 고급반을 병행 운영하여 초급반 수료자를 고급반에 입교 조치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었다.<sup>67)</sup>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어 교육 수료생의 수준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및 필요한 임무수행에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어가 비록 6성의 성조를 지니는 특성으로 낯선 측면은 있지만, 단어의 60%가 한자로 되어 있다는 점, 대체로 영어알파벳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군사용어는 대체로 한자에서 파생되어 익숙하다는 점, 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생의 열의와 일종의 강제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교육의 효율성은 높았고, 그 성과로 인해 교육생의 베트남어 수준도 일정수준의 목표에는 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대에서 배운 내용을 현지에서 직접 남베트남군 및 주민에게 활용하면서 반복 숙달하였기 때문에 효과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이공의 남베트남군 언어학교에서는 베트남 현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베트남어를 익혔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3개월로 길진 않았지만, 그 효과는 높았다고 평가된다.

66) “서경석 증언(2000.12.13.)”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으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제1권』, 582쪽.

67) 주월사, 「지휘관 회의록(1969. 1. 20)」(HB01985); 주월사, 「지휘관회의록(1973.1월)」(HB01995).

## 나. 베트남어 필수직위 배치 활용

베트남어 교육을 이수한 인원들은 베트남어 사용하는 직위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당시 주월한국군은 사령부와 예하부대의 직위 중 베트남어가 필요한 ‘필수직위’를 지정해 놓고 있었다. 1969년 기준 필수직위는 주월사 125개, 수도사단 및 제9사단 각각 206개, 제100군수사령부 47개, 건설지원단 39개 등 총 623개였다.<sup>68)</sup> 비육군부대의 필수직위 수는 확인되지 않지만, 해병 제2여단의 경우 제100군수사령부의 47개 직위 수준으로 추정된다.<sup>69)</sup>

이러한 배치방식은 교육 대상인원을 선발할 당시부터 미리 염두에 두고 필요인원을 선발한 것이었기에 교육 이후의 활용으로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배치방식 이외에도 남베트남군 언어학교에서 3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자는 남베트남 군부대, 관공서 및 기타 베트남인들과 항시 접촉하는 직책에서 계속 언어 숙달을 하도록 하였다. 또 졸업생 중 일부 인원은 ‘한월사전(韓越事典)’을 비롯한 베트남어 교재 한국어로 편찬하는 업무를 맡기도 했다.<sup>70)</sup> 베트남어 교육을 이수하고 귀국한 인원 중에는 국내 베트남어 교육대에 배치되어 교관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sup>71)</sup>

당시 베트남어 교육대 이수자는 전공자(戰功者), 전상복귀자, 재파일자, 독자·전몰 유자녀, 형제간 파병자 등과 함께 ‘특수사유자’로 분류되어 보직 관리되었다.<sup>72)</sup> 베트남어 해득자(解得者)는 ‘월남어 교육대’ 교육이수자 또는 현지에서 베트남어를 습득한 자로서 장교의 경우에는 베트남어 해득을 필요로 하는 직위에, 사병의 경우에는 24시간 베트남

68) 육군본부, 『파월육군종합전사 제1권』, 서울: 육군본부, 1969, 596쪽.

69) 이러한 추정은 해병 제2여단의 남베트남군 통역하사관 직위가 제100군수사령부와 동일했던 점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이다.

70) 주월사, 「회의록(1966년 7월)」(HB01950).

71) 박민식 증언(2017.8.8).

72) 주월사, 「지휘관 회의록(1967년 4/4분기)」(HB01978).



인과 접촉하는 전담직위에 보직되었다. 이러한 직위의 예로는 대민접촉이 많은 민사과, 첩보수집부서, 포로 신문부서 등이었다. 또 중대 단위에 편성되어 첩보수집과 대유격전을 담당했던 특수정찰대에도 베트남어 가능자가 편성되었다.<sup>73)</sup>

이러한 한국군의 베트남어 교육과정 운영으로 파병 초기 직면했던 언어소통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트남어 자원 부족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했다.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어 필수직위에 대한 충원율도 목표만큼 달성되지 못했다. 1967년의 경우 베트남어 사용이 필요한 필수직위 623개 중 401명이 보직되어 약 69%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었다. 부대별로는 주월사가 42%로 가장 낮았고, 전투부대였던 수도사단도 49%에 불과할 정도였다. 같은 전투사단인 제9사단은 83%, 제100군수사령부는 99%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주월사령부나 수도사단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이었다.

〈표-3〉 베트남어 해득자 통계(1967년 7월 현재)

구분\부대	주월사	수도사단	제9사단	100군수사	건지단	계
필수직위	125	206	206	47	39	623
해득자	53	101	172	46	29	401
과부족	-72	-105	-34	-1	-10	-222
비율(%)	42	49	83	99	74	69.4

\* 육군본부, 『파월육군종합전사 제1권』, 596쪽.

채명신 주월사령관도 1967년 9월 개최된 한 좌담회에서 지금은 영어보다도 ‘월남어 교육대’가 더욱 필요하다면서 베트남어 교육의 필요성

73) 주월사, 「회의록(1966년 7월)」(HB01950), 1966년 7월. 비둘기부대 방첩대에 근무했던 박상호의 경우 사이공의 언어학교를 이수 후 대민업무를 주로 담당했으며, 부서 내에서는 매일 12개의 남베트남 신문을 읽고 요약보고서를 만드는 일을 수행했다. 박상호 증언(2017. 8. 8).

을 강조하였다.<sup>74)</sup> 당시 영어는 중·소대장들 수준에서 가능했지만, 베트남어는 그렇지 못한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베트남어 사용자 부족문제는 파월 중반이후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이 철군하는 1973년 수도사단 사례의 경우 여전히 회의록에 장교의 경우 베트남어 해독장교의 확보 곤란 및 타 직위 보직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월어장교 적기 충원 및 소요직위 보직’이 거론되고 있다. 또 1973년도 인사목표로 설정된 사항 중 하나는 ‘월남어 해독자 전원 소요 직위에 보직’으로 설정되기까지 했다.<sup>75)</sup>

따라서 베트남어 사용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베트남어 해독자에 대한 복무기간 연장과 귀국자의 재파견 조치, 그리고 수당지급이었다.

복무기간 연장조치는 주월사 차원에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었다. 왜냐하면 한국군 파월 기본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숙달된 베트남어 구사자는 늘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베트남어 교육수료자는 복무연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다른 특기 장병들과 함께 6개월에서 1년간의 추가 복무연장 조치를 시행하였다.<sup>76)</sup> 이 결과 1966년 12월의 경우 복무연장자 총 1,663명(장교 106명, 사병 1557명) 중 베트남어 이수 및 해독자는 105명(장교 40명, 사병 65명)이 복무연장 되었다.<sup>77)</sup>

또 귀국 장병에 대한 재파병 조치도 시행되었다. 이것은 채명신 사령관이 본국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1차 파월 당시 베트남어 교육대 교육을 수료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재파병을 요청한 것이다.<sup>78)</sup> 1965년

74) 이연교·김용택, “주월군 창설 2주 근속장병 좌담회-장글에 평화를 심으며,” 『동아일보』, 1967년 9월 28일.

75) 수도사단, 「단위대장 회의록(1972. 12. 28)」(HB01973).

76) 주월사, 「회의록(1966년 7월)」(HB01950). 1966년 7월. 당시 복무연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특기 장병들은 베트남어 통역관 이외에, 특수정보요원, 태권도 지도요원, 대외접촉 섭외요원, 그리고 정비기술 요원 등이었다.

77) 주월사, 「지휘관회의록(1966. 12. 22)」(HB01975).

비돌기부대 2진 파병시 경비대대 정보관(중위)로 파병되었던 박민식이 1968년 11월 맹호부대 26연대 1대대 4중대장으로 재파견된 것도 베트남어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이었다. 박민식은 비돌기부대에 파병되었을 당시 민사업무, 정보업무 수행을 위해 베트남어 교육을 받았고, 베트남어 교육대 수료자 재파견 조치에 따라 대위 진급 후 중대장 요원으로 파견된 경우였다.<sup>79)</sup>

베트남어 교육대 수료자에 대한 통역수당 지급도 시행되었다. 이것은 교육이수 후 베트남어 가능자들의 활용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였다. 통역수당은 베트남어 전담직위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던 것으로 일정 시기마다 베트남어 시험을 치러 60점 이상으로 합격한 자에 한해 지급되었다. 재파병자로서 베트남어 해득자는 재파병 첫 달부터 수당이 지급되었다. 이 시험의 합격률은 비교적 높았다. 1967년 6월 30일 239명이 응시하여 205명이 합격하고 34명이 불합격하였다.<sup>80)</sup> 당시 통역수당 지급에 대해 박상호에 따르면, 베트남어 교육 수료 후 자대에 배치되면 미 국제개발국(US-AID)에서 베트남어 수준 시험을 보았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통역수당 50\$이 매달 지급되었다고 한다.<sup>81)</sup>

## 다. 한국군의 베트남어 교육 평가

한국군의 첫 해외파병이었던 베트남파병에서 현지어에 대한 교육은

78) 박민식 증언(2017. 8. 8).

79) 박민식 증언(2017.8.8).

80) 주월사, 「지휘관 회의록(1967년 2/4분기)」(HB01976).

81) 박상호 증언(2017.8.8.). US AID는 미 국제개발국(US Agency for Development)을 말한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은 직접 대민업무를 담당했던 한국군과 달리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MAC-V)의 지시에 따라 US AID가 담당했다. 따라서 이들에게 베트남어가 가능한 한국군인들은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존재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중요한 문제였다. 이것은 단순히 낮선 전장 환경 속에서의 적응차원이 아니라 성공적인 작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였다. 특히 한국군의 작전이 군사작전과 민사작전의 비중이 각각 50%였던 상황에서 현지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전쟁보다 더 중요시 되었다.<sup>82)</sup> 당시 한국군은 ‘이 전쟁에서 지역을 점령하는 것 보다 주민의 마음을 점령하는 편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의사소통이 가장 큰 선결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sup>83)</sup>

그러나 국내에서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은 불충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파월한국군에 대한 베트남어 교육은 지금까지 한국군이 했던 해외파병과 비교할 때 가장 체계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베트남어 필수 사용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측면이다. 연인원 32만여 명의 베트남전쟁 참전자 모두가 베트남어를 능숙한 수준으로 구사하면 최상이겠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베트남어 필수직위에 보직되는 인원들을 중심으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해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은 성과가 있었다. 또 이렇게 양성된 베트남어 인력에 대해서는 필수직위 보직, 복무연장 우선조치, 재파병 요청 및 통역수당 지급 등의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하였다. 또 이미 교육 받은 인원을 교관으로 활용하거나, 이들을 통해 한국군에 맞는 베트남어 교재를 편찬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짧은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많은 인원을 배출할 수 있었다. 비록 파병기간의 제한이나 순환보직이라는 군인의 특성상 필수직위 보직 등의 조치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은 측면은 있었지만,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미·남베트남 3국의 협조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 측면이다.

82)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종합연구』, 868쪽.

83) 주월사, 「회의록(1966년 7월)」(HB01950).

한국군의 베트남어 교육은 남베트남의 교육기관, 미군의 경비지원, 한국군 위탁교육이 종합된 결과였다. 남베트남군 언어학교에서 베트남인 교관을 통해 교육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미군이 지원하였다. 이것은 한국이 파병당시 남베트남군, 미군과의 협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 놓은 결과였다. 이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베트남어 교육은 매우 양호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셋째, 현지어 교육을 통해 작전에서의 성과를 제고한 측면이다. 적과 아군의 경계가 불명확했던 베트남 전장 환경 속에서 작전에 필요한 첩보는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유대관계 속에서 획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 유대관계는 원활한 언어소통 위에서 구축되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sup>84)</sup> 당시 한국군에게 베트남어는 총을 쓰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만큼 필요한 내용이었던 것이다.

## 5. 결 론

지금까지 한국군의 베트남파병 당시 베트남어 교육 실태를 규명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이 논문을 통해 처음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파병에서 현지의 언어에 대한 습득과 활용은 전투기술 못지않게

84) 제9사단 28연대 1대대 정보장교였던 전학봉의 경우 본인이 베트남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간에 베통의 식량조달 활동 같은 첩보를 손장의 협조로 많이 받았다고 한다. “전학봉 증언(1981.3.18.)”,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으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제2권』, 75쪽. 해병대 중대장이었던 이덕길은 자신의 중대에 베트남어가 능통한 민사병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베트남주민과 각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했고, 이것이 베통에 대한 첩보를 얻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고 증언한다. “이덕길 증언(1982. 5. 27.)”,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으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제3권』, 522쪽.

중요하다. 특히 전쟁의 양상이 전투 일변도가 아니라 민사작전의 비중이 그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라면 주민들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언어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도 이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국내와 베트남 현지에서 파월한 국군을 대상으로 현지어인 베트남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군은 국내에서는 전 파병 장병들에게 베트남어 회화집을 지급하는 수준이었지만, 별도의 특별직위에 근무할 장병에게는 파병 전 베트남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준비를 거쳤다.

또 베트남 현지에서도 사이공의 남베트남군 언어학교와 한국군 예하 부대에 ‘월남어 교육대’를 개설하고 초급반, 고급반의 수준에 따라 장병들에게 베트남어를 교육시켰다. 이 과정을 통해 총 4,51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미군의 지원을 받았으며, 교육 이수자는 베트남어 지정 직위에 배치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체적인 교육생 규모 정도만 확인되던 상황에서 진일보한 결과로써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차 사료의 부족으로 베트남어 교육의 세밀한 부분까지 완전히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베트남어 교육과정의 비용을 지원한 미군의 구체적인 비용내역이라든가, 교육인원의 수준테스트 결과, 국내에서 이뤄진 군사정보대 과정의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교육생 명단, 한국군 예하부대에서 운영한 ‘월남어 교육대’의 교관 운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밝히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채워지기를 기대한다.

현재 한국군은 유엔과 다국적군의 일원으로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베트남전쟁 이후 한국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남수단, 서부사하라 등 전 세계의 분쟁 및 전쟁지역에 파병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부여된 임무와 지역의 위험도에서는 차이는 있을지라도 해외지역에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점에서 과거 베트남전쟁 당시 현지 언어에 대한 교육사례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8. 1. 7, 심사수정일 : 2018. 2. 13, 게재확정일 : 2018. 2. 22)

주제어 : 베트남, 베트남어, 베트남전쟁, 파월한국군, 언어학교, 월남어교육대,  
통역관, 군사정보대

## 〈참 고 문 헌〉

### 1. 1차 사료

- 「주월 한·미군사실무약정서」(1965.9.6).  
「주월한국군사령부 및 주월 미국군사원조사령부간의 경리실무협정」(1965.12.15).  
「한·미·월 군사실무합의서」(1964.9.5, 사이공).  
「한·월 군사실무약정서」(1965.9.6, 사이공).  
국방부 합동계획단, 「국방부 합동계획단의 중과부대(전투부대) 편성지침」(1965.6.28).  
국방부, 「베트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요청」(1964.7.23).  
대한민국군사사절단, 「M-21 파견단 대베트남정부건의서」(1962).  
수도사단, 「맹호주간지 119-200호(1968.1.19-1969.8.15)」(HB02459).  
\_\_\_\_\_, 「단위대장 회의록(1972.12.28)」(HB01973).  
수도사단 G-2, 「북괴공작단 침투(1968)」(HB01811).  
주월사, 「지휘관 회의록(1969.1.20)」(HB01985).  
\_\_\_\_\_, 「지휘관회의록(1966.12.22)」(HB01975).  
\_\_\_\_\_, 「베트남전과 북괴의 심리전」(1968).  
\_\_\_\_\_, 「지휘관 회의록(1967년 4/4분기)」(HB01978).  
\_\_\_\_\_, 「지휘관 회의록(1967년 2/4분기)」(HB01976).  
\_\_\_\_\_, 「지휘관회의록(1973년 1월)」(HB01995).  
\_\_\_\_\_, 「회의록(1972년 전반기)」(HB01953).  
\_\_\_\_\_, 「회의록(1966년 7월)」(HB01950).

### 2. 단행본 및 논문

- 육군본부, 『육군사 제9집』, 서울: 육군본부, 1967.  
\_\_\_\_\_, 『육군사 제10집』, 서울: 육군본부, 1968.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제1권』, 서울: 국방부, 2001.  
\_\_\_\_\_,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제2권』, 서울: 국방부, 2002.



- \_\_\_\_\_,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제3권』, 서울: 국방부, 2003.
- \_\_\_\_\_,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서울: 국방부, 2007.
- 국방부 기획국, 『주월군통계연보 1967년판(‘64~’66)』, 서울: 국방부, 1967.
- 김일성, “월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된다(조선인민군 제203부대 군인들과 한 담화, 1966년 10월 19일),” 『김일성 전집』 제3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373-384쪽.
- 김 풍, 『평화의 십자군 베트남 1969』, 고양: 우신출판문화, 2013.
- 백기인, 『건군사』,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2.
- 제20사단, 『올빼미약사 제1집』, 양평: 제20사단, 1974.
- 송정남, 『베트남 탐구』, 서울: 한국외대 지식출판원, 2015.
- 육군대학 역, 『베트남지역편람(상·하)』, 진해: 육군대학, 1966.
- 육군본부, 『파월육군종합전사 제1권』, 서울: 육군본부, 1969.
- \_\_\_\_\_, 『주월육군 역사 사진집』, 서울: 육군본부, 1968.
- \_\_\_\_\_, 『팜플레트 70-19-2 파월전사 제2집』, 서울: 육군본부, 1967.
- 이재태, 『옛 전적지를 찾아가다』, 서울: 전통족보문화사, 2015.
- 제9사단 작전참모처 편, 『백마부대사 제2집』, 고양: 제9사단, 1983.
-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2(1950-1961)』, 서울: 국방부, 1987.
- \_\_\_\_\_, 『파월한국군전사 제10권』, 서울: 국방부, 1985.
-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종합연구』, 주월한국군사령부, 1973.
-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8.
- 추동우, 『베트남어회화』, 서울: 국민계몽선전사, 1966.
- 한국외대 베트남어과 편, 『Doi Thoai』, 서울: 한국외대 베트남어과, 1970.
- 합동참모대학,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0.

### 3. 기 타

- 미 국방언어학교([www.dliflc.edu](http://www.dliflc.edu)).
- 미 우드로윌슨센터([www.wilsoncenter.org](http://www.wilsoncenter.org)).
- 한국외대 베트남어학과([www.vietnamhufs.co.kr](http://www.vietnamhufs.co.kr)).
- 매일경제, “한국장병 37명 수료”, 『매일경제』(1967년 6월 12일).

이연교 · 김용택, “주월군 창설 2주 근속장병 좌담회-장글에 평화를 심으며”, 『동아일보』(1967년 9월 28일).

#### 4. 참전자 증언

성명	직책	증언일자	비고 (청취자 또는 출처)
박민식	전)맹호부대 중대장	2017.8.8	이신재(필자)
김동수	전)군사정보대 신문장교	2015.11.16	
박상호	전)비둘기부대 방첩대	2017.8.8	
소병민	전)주월사 태권도교관	2017.7.19	
서경석	전)수도사단 제1연대 제11중대장	2000.12.13	『증언을 통해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제1권
장창규	전)수도사단 제1연대 제3중대장	2000.12.19	
김창덕	전)제9사단 제28연대 정보주임	1982.10.11	『증언을 통해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제2권
신인섭	전)제9사단 제28연대 1대대 작전장교	1982.6.25	
전학봉	전)제9사단 제28연대 제1대대 정보장교	1981.3.18	
김문구	전)9사단 헌병대 교통반장	2000.12.18	『증언을 통해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제3권
명익표	전)해병 제2여단 대대장	1966.10.10	
성병문	전)해병 제2여단 중대장	1978.2.16	
송정희	전)해병 제2여단 민사장교	1976.8.17	
이덕길	전)해병 제2여단 제5대대 중대장	1982.5.27	

<Abstract>

## The Local Language Education of Korean Force's during the Vietnam War

Lee, Sin-j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Korean force's local language education and utilization during the Vietnam War. The acquisition and utilization of local language in military's overseas dispatch is just as important as combat skills. In particular, if the aspect of war is not a battle, but a high proportion of civil operations, language will be an important tool for maintaining good relations with the local people. This was also considered important when the Korean troops dispatched the Vietnam War.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education of Vietnam language was systematically conducted in Korea and in Vietnam. In Korea, a Vietnamese Communication book was distributed to all soldiers who were supposed to dispatch in the war zone of Vietnam. And, they had systematic preparations for soldier who were to be assigned to a specific position. In addition, in Vietnam, a Vietnamese language education school was established in the Vietnamese language school of Saigon and the Korean army unit, and the Vietnamese language was taught. Through this process, a total of 4,519 persons had been cultivated as the Vietnamese language human resources in Vietnam. The Korean military training program was carried out at the language school with the support of the US Army.

This study has not been attempted in the previous studies and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was attempted through this paper. It will also be an important reference case for the ROK military's preparations for dispatch troops overseas.

Key Words : Vietnam, Vietnamese language, Vietnam War, Korean Forces In Vietnam, Language School, Vietnamese Language Educational Unit, Translator, Military Intelligence Group

